

치 사

생명의 기운으로 장엄한 여러분의 학위 수여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치합니다. 오늘은 한국불교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栋梁지재(棟梁之材)를 배출하는 뜻 깊은 날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승가교육 구현과 후학양성을 위해 애써주신 총장스님과 여러 교수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979년 모든 종도들의 여망을 담아 개교한 중앙승가대학은 이제 종단의 기본교육기관이자 승가교육의 전당으로서 불교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 땅의 나란다 대학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는 종단을 중심으로 사부대중 모두가 힘을 모아 한국불교를 한 단계 올리자는 일념으로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2013년부터 입학하는 스님들에게는 종단교육정책에 따라 학비 전액을 종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4년 후면 수학하는 학인스님 모두가 전액 종비로 교육을 받게 되는 신기원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는 학인 스님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연구하고 수학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선지식 양성의 초석을 만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4개학과에 불과하던 전공과정을 3개 학부, 6개 전공으로 개편하여 다양한 전문분야를 전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불교가 보다 다양해지는 현대사회와 세분화되는 미래 사회를 이끌 전문승려를 양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종단의 운영기조를 “세상과 함께 하며 희망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서원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종단은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 하는 불교’를 발원하고, 시대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실현해야 할 과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대승보살의 서원처럼 이웃의 아픔과 함께 하기 위한 종무와 사업을 진행하고자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불교 스스로 희망을 만들고 국민의 시선과 나란히 같은 곳을 바라보며 변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종단의 과제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함께 동참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을 계기로 여러분들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일원이 되었음을 잊지 말고 행동과 마음가짐이 더욱 청정해야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동문수학하던 도반들이 이제 전국 각지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수행하며 한국불교의 좌표가 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다시 만날 때는 서로 괄목상대할 만큼 성장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항상 스스로 탐마하여야 합니다.

원효스님도 ‘백년도 잠깐인데 어찌 배우지 않겠는가(忽至百年 云何不學)’라고 하시며 항상 공부를 게을리 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렇게 탐마할 때 한국불교의 미래는 더욱 더 밝아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종단에 주어진 시대적 과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대중과 함께 호흡하며 성장해 갈 때 우리 종단의 위상은 더욱 더 높아질 것입니다.

오늘 졸업하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종단의 사부 대중과 대학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7(2013)년 2월 28일

학교법인승가학원 이사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